



## 좋은 글, 좋은 친구

고전작품을 읽어 내려가면 ‘우정’과 관련된 일화들을 은근히 발견할 수 있다. 허물을 감싸주며 끝까지 상대를 믿고 지지해 준 관중과 포숙, 이들의 우정은 ‘관포지교’(管鮑之交)라는 고사성어를 남겼다. 어린시절부터 정치적 동반자로까지 지속된 오성과 한음의 우정은 ‘오한지교’(鴉漢之交)로 일컬어지곤 한다. ‘지음’(知音)은 어떤가. 백아가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벗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아니었던가. 종자기가 죽은 뒤 백아가 거문고의 줄을 끊었다는 일화는 그래서 더 큰 울림을 준다.

이쯤되면 왕창령이 신점을 전송하며 읊었다는 ‘부용루송신점’(芙蓉樓送辛漸)이 기꺼이 읽히지 않겠는가. “가을비 내리는 강을 따라 밤새 오나라로 들어가고, 날이 새어 그대를 보내니 초나라 산도 외롭다. 낙양의 친구들이 안부를 묻거든, 한 조각 얼음 같은 마음 옥병에 간직했다고 전해주게.”(寒雨連江夜入吳, 平明送客楚山孤. 洛陽親友如相問, 一片冰心在玉壺.)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하듯 절절한 마음을 토로했던 이 노래는 소설가 김연수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다(〈청춘의 문장들〉). 그 어떤 혹독한 시련이 다가온다 해도, 원치 않는 세상의 시험대에 선다 해도, 그 사람의 곁에 끝까지 그를 믿고 그의 편이 되어주는 벗이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 축복일 것이다. 그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일까. 욕심일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작가의 곁에는 대부분 좋은 친구가 있었다. 에밀 졸라의 곁에는 세잔느가, 랭보의 곁에는 베를렌느가, 이상의 곁에는 김기림이 있었다. 졸라는 다시 점(多視點) 화법과 같은 세잔느의 실험정신을 지지해주며 자신 역시 ‘실험소설론’을 발전시켜 〈루공 마카르〉와 같은 대작을 탄생시켰다. 랭보의 〈지옥에서 보낸 한 철〉은 실제로 연인이기도 했던 베를렌느와의 관계가 중요한 모티브로 작동된 결과

조은주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원

물이었다. 세잔느가 졸라와의 우정을 ‘사과’ 정물 연작으로 표현했듯이 랭보는 베를렌느를 대상으로 여러 편의 시를 지었다. 이상과 김기림은 서로의 작품에 대해 감상과 평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창작활동을 열렬히 친구였다. 이상은 죽기 직전 동경에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었던 순간에도 김기림에게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외로운 심정을 달랬다.

위대한 작가와 위대한 작가의 친구들.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었던 정신적 동반자이자 따끔한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소중한 독자이기도 했다. 어쩌면 좋은 글이란, 이렇듯 좋은 친구를 거느리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함께라야 비로소 완전해지는 작업일지도 모른다. ‘좋은 글, 좋은 친구’라는 이 글의 제목은 이러한 맥락에서 붙여본 것이다. 글쓰기 상담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학생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다독(多讀)이나 다작(多作), 다상량(多商量)이 아니라 ‘좋은 친구’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좋은 친구란 그저 마음을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는 정도가 아닌, 학생들이 자신이 쓰려는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쓴 글을 보여주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글쓰기의 친구, 글쓰기의 동반자를 의미한다.

현실은 어떠한가. 글쓰기 교실에 상담을 받으러 온 학생들의 경우 불행하게도 그 글의 최초의 독자는 바로 상담자이다. 물론 학생들의 글은 주제와 구성, 문장 등을 두고 볼 때 더러 편차는 있다. 그러나 상담을 받기 위해 들고 온 그 글을 사전에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마도 거의 모두가 동일할 것이다. 상담을 받는 학생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갈리는 것도 이 점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신의 글을 실제로 읽은 독자에게 최초로 듣는 평가 앞에서 학생들은 당황스러워 한다. 그래서 상담 내용을 무작정 수긍하며 열심히 받아적거나,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며 자신의 글이 실제로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설명하는 등 상담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한다. 왜일까. 자신의 글을 누군가에게 읽히고 상담을 받는 상황 자체가 익숙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이 학생들에게 실제로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상담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생이나 수용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실 좋지 않은 태도로 느껴진다. 전자의 경우 글에는 비록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지만 자신이 애초에 글을 통해 쓰려던 내용과 의도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아서 상담은 어려워진다. 후자와 같이 비판과 조언을 수용하지 못하는 학생의 태도는 두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글쓰기의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실현 불가능한, 어려운 부탁일까? 아닐 것이다. 같은 전공의 친구라면 금상첨화이지만 그저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친구이거나 같은 수업을 수강하는 친구라고 해도 나쁠 것이 없다.



글쓰기 상담의 대상이 대부분 강의 과제물이기 때문에 같은 과제물을 제출해야 하는 친구들이 서로의 리포트 작성과정을 공유하면서 도움을 준다면 그 리포트는 다른 글보다 더 좋은 글이 되리라고 단언할 수 있다.

좋은 글의 출발점이 독창적인 문제의식에서 발전된 좋은 주제라고 할 때, 이미 쓴 글에 대한 상담은 주제 선정에까지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그 글을 정말 자신이 쓰고 싶고, 쓸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즉 학생 자신의 관심사와 능력에 부합되는 주제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글은 최종적으로 그 글을 읽게 될 가상의 독자를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의도한 바대로 읽힐 수 있는 글을 쓰는 일은 물론 항상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만약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글을 완성하기 전에 전체적인 맥락을 검토해 줄 수 있는 친구, 글쓰기의 친구는 그래서 더 소중한 존재이다.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글이 완성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글쓰기 친구를 만드는 일은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신이 써야 할 리포트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것, 자신이 쓴 글을 미리 보여주고 조언을 구하는 것, 친구의 비판을 가감없이 수용하는 것, 친구의 글을 읽으며 장단점을 파악해 보는 것, 이 모든 과정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바로 이즈음 글쓰기 상담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 리포트 특강: 유형별, 계열별 글쓰기

세부 프로그램	
계열별 글쓰기	인문 계열 / 사회 계열 / 과학기술 계열 리포트 작성법
유형별 글쓰기	인용과 표절 / 연구논문 / 실험보고서 / 조사보고서 / 서평 리포트 작성법

[시 기] 4월, 10월 (대학기 1회 개최) [대 상] 서울대학교 학부생

[신 청] 글쓰기교실 홈페이지(<http://writing.snu.ac.kr>)에서 온라인 접수

[주 최]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